



일탈에서 돌아왔지만 변한건 없어...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겨울엔 눈이 내려 참 포근해요. 오늘은 겨울나무들이 눈이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 '눈소나' 한 마리 겨울잠을 자면서 꿈을 꾸겠죠. 보름사리 때면 '추렴'이라도 하여 국수사리 넣은 뜨거운 국물 생각나요. 백석 시인의 '국수'란 시도 떠오르고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 연재코너도 막을 내립니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래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내년엔 올해보다 더 행복하고 뜻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화롯불'이 되어 서로 서로 따스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눈소나: 곱의 새끼.

보름사리: 음력 보름날의 밀물과 썰물. 보름사리가 가까워지면서 해면이 자꾸 높아진다.

사리: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동지. 국수사리. (수랑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수, 새끼, 실 따위의 동치를 세는 단위. (점심에 냉면 두 사리를 더 먹었다)

추렴: 묘입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둬들. (주인의 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모일 초소가 없다고 추렴들을 내서 이 집을 사 놓고 날더러 들립니다.) <홍명희, 일각장>

화롯불: 한데다가 장작 따위를 모으고 질러 놓은 불. (타자마다 한 열로 놓은 화롯불이 대추나무 그림자를 흔들며 넘실거렸다.) <한수산, 유민>

인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최유작 '푸른 기차'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잃어 가는 현대 지식인의 초상을 반복되는 일상과 일탈 행위를 통해 보여주는 단편소설입니다. 비판적이고 사색적인 관념소설이기도 해요.

스물여덟 살의 대학 강사인 '그'는 어느 날,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 때나 눈이 떠질 때 일어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기상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그저 침대에 누워 있다.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지만 전화를 걸지도 않는다. 써야 할 논문이 있었지만 컴퓨터 앞에 앉지도 않는다. 전화를 올렸지만 받지 않는다.

부주의한 발동작에 걸려 전화 코드가 빠져있지만 다시 찾지 않는다.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지만 침대에 누워 있을 뿐. 불현듯 일어나 연필을 쥐고 세면대에서 속옷을 빨기도 한다. 저녁 열 시나 열 한 시쯤 허기를 느끼면 밖으로 나가 요기를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그는 삶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 그는 여자 친구 C의 목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삼십 분을 걸어 은행에 간다. 몇 달 동안의 저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빚속을 걸어 돌아온다. 여행을 생각하지만 곧 포기한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한 벌 있는 여름 양복을 다려 입고 버스를 타

고 시내까지 간다. 총무로움에서 내려 명동 쪽으로, 명동에서 퇴계로 쪽으로, 퇴계로에서 서울역 쪽으로 걷는다. 그는 그가 모르는 모든 거리를 걷는다. 그는 밖으로 나갈 때 마다 지폐 한 장씩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는 고궁, 전시장, 야구장, 동물원, 공원, 도서관, 화랑 주변을 맴돈다.

또한 영화관, 백화점, 레코드 가게, 오디오 상점, 책방 근처를 오래 배회하기도 하나 어떤 것도 그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다. 한때 그토록 좋아했던 음악도 이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현대인 무의미성 · 정체성 혼란 그라 문체 · 소설의 기법 새로움 추구한 작가

저녁나절, 그는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방으로 돌아온다. 이제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는 옷통을 벗고 앉아서 가상의 구직 편지를 작성하고 이력서를 덧붙인다. 그러나 편지를 우송하지는 않는다. 그는 우연히 큰누이의 아파트를 찾아가 간다. 그는 하룻밤을 조카와 함께 자면서 지금보다 중요하고 더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줄 일자리를 생각해 본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일상에 몰입하는 삶을 꿈꿔 보기도 한다. 주말에 그는 누이의 시구들과 외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고, 일상의 평화와 안락을 꿈꿔 본다. 그런 후 아무도 없는 아침나절 그는 먼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매일 외출한다. 서랍 속에서 지폐 한 장씩

집어 들고 나간다. 그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서울역이나 남산, 야구장 근처나 대공원 등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오곤 한다. 서랍을 열어 더 이상 지폐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는 외출을 멈춘다. 어느 날, 그는 군악대의 북소리와 함께 일어나며 관습과 규칙의 생활로 돌아온다. 그는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며 찾잔을 치고 책상을 정리하며 침대보를 깔고 커피를 타며 오디오의 버튼을 누른다. 그때, 그가 다시 들은 음악의 제목은 푸른 기차였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이상의 소설 <날개>를 연상시켜요. 그러나 이상의 주인공 내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반면, 이 소설의 주인공 그는 일탈에서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죠. 도시를 배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지나지만 그는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인 1990년대는 이상의 시대인 1930년대보다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지죠. 한층 발달한 도시 문명 속에 한층 깊어진 현대 지식인의 무의미성이나 정체성 혼란이 그려져 있으나, 삶의 의미를 잃어 가는 현대 지식인의 초상은 이상의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보다 더 독자성을 불편하게 만들죠. 문체뿐 아니라 소설의 기법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의 실험 정신을 잘 보여 주고 있어요. 익명의 '그'를 설정함으로써 작가는 사회 속에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명옥(시인) · 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육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 e-메일: rollingh@paran.com)

자부 반항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전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은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반항하고 싶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ID: 반항녀)

무조건 부모님께 반항 보다는 함께 경청하는 자세 필요해요

초등부와 중등부가 다른 점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 '순진'과 '순수'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초등부 어린이들은 대개 순진합니다. 즉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청소년부에 들어서면 어른들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일과 말들을 청소년에게만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되지요. 이러한 변화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의 비중이 100이고 아이의 비중이 0이라면, 청소년기에는 대략 70 대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니 자신의 비중이 그보다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중을 낮춰 보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비중이 커지고 부모님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속에서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모님께 반항하기 보다는 함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육원암 청소년 지도봉사 운산 스님)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형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히말라야 산상 염불기도 법회

히말라야 선원 - 네팔

해상 참선 법회

덕적도 빛지름 해변 - 대한민국

www.begood05.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